

SM, 동방신기 3인측 재반박 "中 공연 돌연 불참선언, 상식적으로 이해 안돼"

입력 2009. 11. 13. 18:29 · 수정 2009. 11. 13. 18:29



[뉴스엔 박세연 기자]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심천에서 진행 예정이던 아시아 투어 공연과 관련해 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멤버 3인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1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 3인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직후에도 당사에 중국 심천 공연을 하겠다 했으나 2주 전 갑자기 불참 의사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SM 측은 "동방신기 세 번째 아시아 투어는 이미 작년 6월 12회 공연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동방신기 3인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 초 서울 공연 3회, 중국 남경 공연 1회, 태국 방콕 공연 2회, 중국 북경 1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심지어 가처분 신청 제기 이후 개최된 10월 2일의 중국 상해 공연도 정상적으로 마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SM 측은 "또 지난 9월말 법원에서 동방신기 3인과 3인측 변호인, 당사와 당사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했을 당시, 재판부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동방신기 3인에 질의하자, 동방신기 3인은 '10월에 중국 상해 공연이 있고, 11월에는 심천 공연이 있다'라고 명확히 언급한 사실이

있다"며 "더불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직후에도 당사의 담당 매니저에게 '중국 심천 공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SM 측은 "그런데 동방신기 3인 측은 공연 2주 전에 갑자기 심천 공연에 불참하겠다고 당사에 의사를 밝혔고, 재차 확인 시에도 명확히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동방신기 3인이 공연을 하길 원했지만 공연계약을 보여주지 않아서 갑자기 심천 공연에 불참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게다가 계약을 보여주면 심천 공연을 하겠다고 당사 측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멤버 3인 측이 대리인을 통해 밝힌 상반기 정산에 대해 SM 측은 "상반기 정산에 대해서는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금년에도 당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산 절차와 세부 내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동방신기 3인에게 정산 내역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라고 통보했으며, 다만 소송 중인 관계로 정산금은 별도로 보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방신기 3인은 정산 결과를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SM 측은 "결국 동방신기 3인은 스스로 밝힌 내용에 대해서조차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정산에 대해서는 동방신기 3인 및 대리인 모두 사실과 다른 악의적 주장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SM 측은 이날 오전 "지난 2일 당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내년 초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에 대해 동방신기 3인 측은 답변 기한 일인 지난 12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들 3인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동방신기의 내년 초 국내 컴백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동방신기 3인 멤버(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뉴스엔에 "현재 세 멤버들의 입장은 하루속히 무대에 서고 싶은 것"이라며 "심천 공연 건도 세 멤버들은 계약 내용을 보여주면 공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세 멤버들은 SM이 공연에 관한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13일)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M은 공개요구를 하기에 앞서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을 이행하고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또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올해 수익도 당연히 분배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SM과 향후 활동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연 psyon@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